
위기에 처한 차베스주의, 분쟁에 빠진 차베스주의

알레한드로 벨라스코

역사학자, 뉴욕대학교 교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북아메리카 회의(NACLA: North American Congress on Latin America) 아메리카들에 대한 보고서》 편집장

원제와 출처: Alejandro Velasco, “Chavismo en crisis, chavismo en disputa”,
Nueva Sociedad, No. 271, septiembre–octubre de 2017, pp.4–12.

핵심어: 주민자치공동체, 위기, 좌파, 21세기 사회주의,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제헌국회 의원선거에 대한 일부 결과가 알려진 지 몇 분 만인 2017년 7월 30일 밤, 카라카스에 있는 국가선거위원회(Consejo Nacional Electoral: CNE) 본부의 지근거리에서 당국의 발표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발발하였다. 처음 보았을 때에는 그리 놀랄 만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가 경과하는 동안 베네수엘라의 수도와 여타 도시들에서 국가안전보장군은 시위자들과 폭력적으로 대치하며 충돌했고, 그날 밤이 끝날 무렵에는 10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말았다. 격렬한 대치 도중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약 4개월간 끊임없이 벌어진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 중 가장

유혈이 낭자한 날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국가선거위원회의 공식발표에 반대한 그날 밤의 시위는 완전히 예외적인 것이었다.

시위는 반(反)차베스주의와 완전히 동일시되는 지역인 카라카스 동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구가 뻘뻘한 빈민가 지역인 카라카스 서쪽에서 벌어졌다. 이 지역 주민들은 수도 카라카스에서 수년간 정부를 지지하는 중심축이었다. 더욱이 이 시위가 벌어진 곳은 인구가 조밀한 ‘1월 23일’ 지구, 즉 지난 50년간 슈퍼블록¹⁾ 단지였으며 미라플로레스(Miraflores)에 있는 대통령궁 주변의 땅을 차지한 바로 그 ‘1월 23일’ 지구였다.

1989년 2월 하순,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민중의 봉기를, 군대가 탱크와 소총을 동원하여 제지한 곳도 이 ‘1월 23일’ 지구였다. 이 일로 인해 전국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월 23일 지구에는 총알구멍들에 여전히 그때의 상흔이 남아 있다. 이곳은 1992년 2월 4일 새벽에 우고 차베스(Hugo Chávez)가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Carlos Andrés Pérez) 정부에 반대하여, 실패로 돌아간 쿠데타를 일으킨 장소이기도 하다. 10년 후인 2002년 4월 또 다른 쿠데타가 한창일 때, 매스컴이 포위당하고 격렬한 탄압이 자행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미라플로레스 대통령궁을 포위하고 그렇게 해서 차베스를 권좌로 복귀시키고자 나서기 시작한 곳도 이곳 1월 23일 지구였다. 차베스주의의 첫 사회적 ‘미션’, 즉 예전에는 빈곤으로 내몰리던 수백만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될부(富)의 재분배 프로그램이 시작된 곳도 여기였다. 빈번한 선거에서 차베스가 항상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던 곳도 여기였다. 선거 결과를 보면 1월 23일 지구는 카라카스 내에서 차베스주의 지지층이 가장 두터운 3개 지역에 연이어 들곤 했다. 외국인 지지자, 외신기자, 외국인 학자들이 차

1) 교통이 차단된 주택·상업 지구를 일컫는다(역주).

베스 정부의 가장 충실한 지지기반을 이해하고자 향한 곳도, 그들이 그토록 ‘혁명의 거점’이라는 명성을 찬양한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그리고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한 후 그의 유해가 안치된 곳도 1월 23일 지구의 정 중앙에 있는 구(舊) 군 사박물관 본청이었다.

이 모든 내력을 감안했을 때, 7월 30일 시위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단지 그 이유만으로 충격적인 건 아니었다. ‘콜렉티보(colectivo)’²⁾라 불리는 민간인 무장단체들의 일원들에 의해 불만이 전면에 드러난 것이다. 콜렉티보는 도시 서민을 기반으로 하며 최근 몇 년간 차베스주의를 여러 차례 구현하는 장본인 역할을 해왔다. 어떤 이들에 따르면, 콜렉티보는 제 거주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동체조직들이다. 다른 이들은 콜렉티보를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되는 준군사조직들이라 말한다. 또 다른 이들이 보기에 콜렉티보는 행진 도중 반대파 시위참가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매질하고도 처벌받지 않고, 위기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동네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민중의 불만을 공포와 폭력을 동원해 억제하는 무정부주의 집단들이다.

그런데 지금, 제헌의회가 선출된 7월 30일, 여당의 당혹스러운 압도적 승리에 대해 바로 이 콜렉티보들이 부정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투쟁 경험이 많은 콜렉티보 중 하나인 ‘라 피에드리타(La Piedrita)’의 지도자 발렌틴 산타나(Valentín Santana)는 지역단체 연합, 비(非)여당 인사, 여당 후보자들로부터 그의 구역에서 제헌의회에 입후보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산타나의 공약은 차베스와 그가 이룩한 혁명 및 혁명의 유산에 대해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주민자치공동체에 충력을 기울이고, 중재기관들을 해산하며, 관료주의와 맞서 군대 없는 전쟁을 벌이고, 부패한 자와 배신자에게 최고형을

2) 베네수엘라 정부를 지지하는 공동체조직의 한 유형으로 베네수엘라에는 20~100개의 콜렉티보가 있다(역주).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일이 끝나갈 때 국가선거위원회는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연합당(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 PSUV) 후보로만 구성된 명부를 승자로 공표했고, 그렇게 산타나와 다른 무소속 후보들을 배제하며, 모든 의석을 여당에 내주었다. 산타나와 무소속 후보들은 5만 표라는 상당량의 지지를 받았다. 그날 밤 시위는 국가선거위원회의 선거부정과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연합당에 대한 국가선거위원회의 편파적인 태도를 비난하면서, 돈트(D'Hondt) 방식³⁾을 적용함으로써 의회에 지역의 목소리, 비판적 목소리, 독립적인 목소리, 가장 중요하게는 “혁명을 지지한다고 입증된(fehacientemente revolucionarias)” 목소리들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제헌의회를 부인하고, 심지어 의회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와 같은 시위들로서의 차베스주의, 그리고 차베스주의가 안고 있는 긴장과 내적 모순에 대해 그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생각지도 못했던 역학에 대해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시위들은 이중의 배제를 겪는다. 첫째, 공식적인 배제, 즉 국가기구의 통제와 정부 엘리트 수준에서 권력이 만들어내는 배제, 따라서 차베스주의를 구성하는 것의 의미가 만들어내는 배제다. 둘째, 국제사회 좌파로부터의 개념적인 배제다. 차베스주의는 절정기에 수직적이고 동질적인 운동이라는 특권적인 이미지를 부여받은 후 볼리바르 혁명의 가장 심원한 곳에 있는 무수한 양상과 회색지대들을 묵과했다. 그런 회색지대는 요즘 같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빛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논쟁에서 그런 회색지대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파악케 할 만한 증거는 없다. 회색지대는 또 다시 뒷전이 된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구분선이 되면서 모든 양상들이 녹아들고, 라틴아메리카 좌파는 저마다 “혁명과 함께 할지, 제국과 함께

3) 벨기에 법학자 빅토르 돈트(Victor D'Hondt)가 고안한,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한 방식. 정당별 득표수를 순서대로 나누어 그 몫이 큰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역주).

할지” 솔직한 정치적 결의를 있는 그대로, 단번에 드러내게 된다.

어떤 이들에게는 강도 높은 사회적·정치적 위기, 날마다 심각하게 악화되는 상황을 보는 것으로 마두로 정부의 진보적 주장에 대한 신뢰를 잃기에 충분하다. 마두로 정부의 경제적 무능, 외국자본에의 우선순위, 점점 확산되는 탄압, 민중의 지지가 점점 감소하는데도 정권을 영속하려는 술책들은 좌파가 회구하는 사회정의, 민주주의적 정의의 근본 원칙에서 벗어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차베스주의야말로 역사의 쓰레기장으로 버려져야 할 대상이다. 마두로가 소외된 이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적으로 차베스 정치프로젝트의 종말을 표상하는 한은 말이다. 차베스주의는 칭송받을 만한 사회적 목표, 민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에 없이 고공 행진하던 유가(油價)가 폭락하면서 이전에 달성한 것이 모두 수포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차베스주의에 대한 끝없는 비난은 윤리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주장을 초월해 생존문제와 직결된다. 생존문제는 베네수엘라의 대재앙 앞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실질적 좌파가 대안적 미래를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문제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은 채 정반대의 결론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 혁명의 타협은 분명히 결점이 있는 정부에, 그렇지만 야당 앞에서 사회적 투쟁이라는 최선의 선택을 표상하는 정부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정확히 측정된다. 야권은 실질적 관심이 사회복지와 거리가 멀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한 부의 축적만을 추구하는 당 안팎의 분파들에게서 지지를 받는다. 그들은 엘리트주의와 그 특유의 비민주적 풍조에 끊임없이 타격을 가한다. 지금 현 시점에조차 마두로 정부가 이 지역의 다른 정부들을 훨씬 상회하는 지지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증명되지는 않지만 반대파가 주장하는 대안에 대해 민중이 깊은 회의를 느낀다는 점을 시사한다. 설령 위기가 악화하면서 그 회의감이 조금씩 절망으로 바뀌게 될지라도 말이다. 더욱이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에게

라틴아메리카의 현재 지정학적 상황, 즉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신자유주의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정부들의 지위가 올라가는 작금의 지정학적 상황은, 좌파에서 나머지 사람들과의 연대를 요구한다. 그 반대는 현재 미국의 군사개입이라는 공공연한 협박을 포함해, 현재 정부에 의해 발생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라틴아메리카 안팎의 “영원한 우파”에게 활동영역을 양보하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개입은 최근 라틴아메리카 역사 중 가장 암울한 시기를 떠올리게 할 것이다.

이토록 상반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자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정부에 대한 비난 혹은 정부와의 연대를 요구한다. 여러 색조가 존재하던 시기는 완전히 끝났다. 그렇지만 먼 옛날부터 있었고 오늘날 현저히 두드러지는 이런 색깔들은 7월 30일에 1월 23일 지구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다수의 시위로써 드러난다. 정부를 공개적으로 거부하지만 전통적 야당으로 넘어가지는 않는 이런 회색지대들을 이해하는 것이, 추종자들이 보기에 이미 완전히 쪼먹고 본질을 잃은 정부를 뛰어넘어 진보정치의 과도기를 숙고하는데 핵심이다. 이런 시위들의 중심에는 정치적·사회적 프로젝트로서의 차베스주의의 형성과 발달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부와 지지기반 간에 혹독한 갈등이 있다. 그렇지만 정부와 지지기반과의 싸움은 차베스라는 강력한 인물과 그 주변에서 조직된 거대 국가기관에 의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양극화라는 현재 국면에서는 아예 실행 불가능해졌다.

사실상, 7월 30일 시위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그 시위의 특이함이 아니라 바로 그 일상성이다. 1월 23일 지구는 혁명의 거점 역할을 했지만, 화제가 될 만한 활동들과 종종 정부에 대한 거부를 표현하는 폭력의 장소가 되곤 했다. ‘콜렉티보(colectivo)’라는 용어가 생기기 훨씬 전인 2003년에는 무장한 민간단체들이 지금은 없는 시(市) 경찰과 대치했다. 당시는 차베스가 이 기관의 해산을 거부

할 때였다. 시 경찰청은 수십 년간 그 지구 주민들에게 범죄, 부패, 폭력과 억압의 온상으로 여겨졌다. 야당 출신의 카라카스 시장이 역임할 때에는 2011년 해산될 때까지 수차례 야당의 돌격부대로 여겨지기도 했다. 2004년 말에는, 여러 단체들이 차베스의 뜻과 반하여 1월 23일 지구에서 시 경찰을 몰아냈다. 2007년에는 반정부 텔레비전 방송사인 라디오 카라카스 텔레비전(Radio Caracas Televisión: RCTV)이 폐쇄되면서 학생시위가 격렬하고 폭력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때 1월 23일 지구의 콜렉티보들이 시위 참가자들과의 난폭한 가두 대립에서 중추역할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또 다른 방송국 본부를 포위했다. 이들이 무기를 포기하지 않자버리도록 결국 차베스가 직접 1월 23일 지구의 무정부주의 단체들을 질책하고 그 단체들을 해산시키라고 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핵심 위험인물 중 한 명인 발렌틴 산타나가 거의 1년간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콜렉티보들은 종속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정하는 긴장관계 하에서 오래 존속했다. 이런 관계는 때때로 마찰과 대립을 일으키며 차베스의 대통령 임기 내내 계속되었다.

1월 23일 지구의 주민 일부가 혁명을 지지하는 자기들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정부 앞에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행사하는 동안, 다른 주민 일부는 투표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당국의 수직주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2005년 시장 선거와 교구 위원회 선거를 포함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 23일 지구의 민간 조직들은 차베스주의 후보들이 행정부와의 연줄로 밀어붙이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은 베네수엘라 역사상 최초로 교구 규모의 예비선거를 자율적인 방식으로 실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일단 투표가 끝나자, 수년 후 어느 7월 30일 제헌의회에서 벌어지게 될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단체가 무소속 후보들에 가해진 족쇄와 국가선거위원회의 여당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에 반대해 국가선거위원회 입구에서 항의했다. 몇 달 후 차베스주의 시장이 임명되자, 이 단체들이 1월 23일

지구와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이 시민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걸 거부했고 1월 23일 지구 출신의 유명한 사회적 투사를 그 자리에 앉혔다. 이런 예는 훨씬 더 많지만 2015년 12월만큼 충격적인 사례는 아마 없을 것이다. 당시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투쟁 경험이 많은 콜렉티브들의 근거지인 “혁명의 지구” 주민들이 의회선거에서 대부분 야당에게 투표한 것이다. 때는 마침 마두로주의를 거부하며 지방에서 한창 대량기권이 벌어지던 참이었다.

외부에서 본 베네수엘라 위기의 분석에서는 마냥 정부에 가깝다고 여겨진 민중 지지기반의 불만의 맥락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표출은 소위 “비판적 차베스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비판적 차베스주의는 대부분 좌파 지식인 및 전문가들, 그리고 민중이 표출한 불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 반대파로 형성된다. 반면 표출된 불만은 차베스주의와 그 지지기반의 동질적 비전의 시각지대를 보여주는데, 이는 민중들과 다양하고 이질적인 반대파 간에 공동의 대의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확실한 것은 지지와 거부에 대한 표현을 동시에 기습적으로 표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1월 23일 같은 지구에서는 “비판적 차베스주의”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흔히 있어 왔고, 그 결과는 위기와 비판의 시기에는 공동체 쪽으로 물러나고, 풍족함과 합의의 시기에는 정부 쪽으로 다가가는 동력으로 작용해왔다.

이런 동력은 무한하지도 않고 정부에 대한 절대적 백지수표를 의미하지도 않지만, 베네수엘라가 수십 년을 통틀어 최악의 위기를 겪는 때에 현저히 유연했다. 위기의 원천들과 맞서 싸우기는 베네수엘라 드라마에 대해 더욱 다채로운, 그래서 비판적 영향력이 더욱 큰 시각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시각은 가장 정치적 태도가 명확한 지지기반에게 차베스주의가 실용적·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항상 국가 및 행정부 견해와 합치/불일치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실용적 측면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1월 23일 지구의 경우 지리

적·정치적으로 정부와 가깝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차베스주의의 최선과 최악의 모습을 가장 지척에서 지켜본 증인이요 주역들이다. 전에는 배제되던 분파들을 아우르는 가장 참여적인 정치시스템을 의미하는 차베스주의의 상징물인 정부의 많은 시도들이 카라카스의 1월 23일 지구에서 기대뿐만 아니라 구체적 개선, 나아가 참여기회의 확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차베스주의의 결점들, 특히 비능률과 부패가 늘 눈에 띄게 드러났고, 비전과 실행 간의 간극이 생겼다. 이 간극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더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헌법⁴⁾의 참여적이고 중심적 이상이 사회적 통제, 비판, 또는 공간에 대한 통제를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면서 그 간극들은 다루기 수월했다. 중요한 것은 실행 여부를 넘어 예전에는 배제되었던 분파들의 개선 및 참여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키려는 국가, 특히 행정부의 의지와 비전이었다. 그걸 달성하고자 시시각각 압력을 행사해야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가 지지기반 내부의 의견 불일치, 모순, 그리고 갈등의 가장 큰 근원이 대두되는 지점일 것이다. 부패와 무능함이 점차 증대되는 동안 그 결과를 경험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실행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의 문제로 여겨졌다. 이는 관료주의뿐만 아니라, 국가기구의 결점들을 무시하고 실질적, 구조적, 혁명적 변화들을 위한 투쟁을 뒷전으로 한 자신의 이웃 및 동료들과도 관련되었다. 이렇게 해서 석유소득수급주의(rentismo)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의 현실과 1999년 헌법 간에 충돌이 차츰 발생하게 되었다. 석유소득수급주의로 규정되는 사회에서는 참여 자격이 계층에 의해 결정되었고 서민보다는 권력을 가진 분파에게 더 우호적이었다.

4)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기에 개정한 헌법. 1999년 헌법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국민의 권리 확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소환제를 포함한 수많은 권리를 민중에게 부여하는 이 헌법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국가정체성은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제5공화국으로 변한다(역주).

더욱이 1월 23일 지구 같은 구역의 사회조직 경험에 있는 단체들 사이에서—이런 단체들은 자기들이, 첫째, 폰토피호 협약(Pacto del Punto Fijo, 1958년)⁵⁾에서 비롯된 사회민주주의와, 둘째,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신자유주의적 국면으로부터 배제당하면서 혁명의 사회정의에 대해 자각하였고 차베스보다 경험을 훨씬 우선시하였다—다음과 같은 어려운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베네수엘라를 변모시키는 데 참여와 주인의식에 호소하는 것으로 충분인가? 차베스주의의 주요 세력은 이를 위한 준비가 되었는가? 차베스 본인이 여러 번 분명히 말했듯이 혁명이 우리의 목적인다면 1999년 헌법에 규정된 다원성과 관용의 원칙이 국제적 정당성과 지방의 경제력을 갖춘 야당 앞에서 장벽으로 작용하는가? 2005년 “21세기 사회주의”라는 틀 안에서 차베스가 이런 의문을 토렷이 제기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차베스주의 중심부에서는 여러 모순들이 커지는 중이었다. 그 모순 인즉슨 한편으로, 반(反)개인주의적 가치와 반(反)소비주의 가치에 호소하는 사회주의적 경향이 다원적 주장들을 저버리고 “심층적 변화”의 사람들을 배제하며 1999년 헌법을 제한적 문서로 보이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의 성격을 갖는 차베스주의가 표를 유지하려면 더욱더 재분배에 역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분배 정책은 석유소득수급자의 소비자보호운동을 조장하고, 사회 및 정치 분야에서 혁명에 관한 충격도 완화했다.

5) 공산당을 제외한 베네수엘라의 3개 정당, 즉 민주행동당(Acción Democrática: AD), 기독교당(Comité de Organización Política Electoral Independiente: COPEI), 민주공화연합당(Unión Republicana Democrática: URD) 대표들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1958년 체결한 협약으로 향후 40년간 베네수엘라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폰토 피호’라는 명칭은 1958년 당시 기독교당의 수장 라파엘 칼데라(Rafael Caldera)가 살던 집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선거결과를 존중할 것과, 승자는 정부 요직을 독점하지 않고 패자에게도 일정 지분을 할애한다는 것이다. 이 협약은 선거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데 기여하기도 했으나 정치적 과점을 가능케 해 정치지도와 관료들의 부패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우고 차베스는 폰토피호 협정을 종식시키고 볼리바르 혁명을 주창하였다(역주).

차베스주의의 의의 그 자체에 대한 이러한 긴장들이 2007년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수포로 만들었을 것이다. 2007년은 차베스가 대통령 임기 중 선거에서 가장 크게 패배한 때다. 그러나 차베스는 모순의 양면 중 선택을 하는 대신 오히려 그 마찰을 증대시켰다. 이미 석유소득의 직간접적인 배분을 통해 유가 폭등이 소비자보호운동을 깊이 파고든 상황이었다. 동시에 사회주의적 스타일의 실험들이 생산 분야(국유화)와 국가조직(주민자치공동체)에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유사한 2개의 차베스주의가 교차했다. 첫째, 1999년 헌법에 뿌리를 둔 차베스주의로, 이는 자원을 재분배함으로써 민중이 주역이 되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선거에서 계속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였다. 둘째, 준비 단계에 있지만 더욱더 사회주의적 스타일의 미래를 겨냥하는 차베스주의다. 이 차베스주의는 반대 경향을 배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운용 방식뿐만 아니라 형태와 구조까지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유가 폭등이 이런 두 경향의 차베스주의를 동시에 유지시키고 심화시키는 반면, 두 경향 간의 분할선이 차츰 뚜렷해졌다. 그러므로 마두로가 제헌의회를 소집한 것은 원칙적으로 차베스주의 내부에 있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고 지금도 증가일로 중이며 조만간 수위를 넘게 될 모순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마두로는 이미 수년 전 1999년 헌법을 혁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폭력의 가리개로 보게 된 분파들에게 호소한다. 사실상 마두로의 제헌의회 소집이 가장 큰 의욕을 불러일으킨 곳이 바로 이 분파들, 즉 주민자치공동체, 콜렉티브, 주민자치위원회였다.

그러나 분명 이것은 불리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만드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 상황은, 위기로 인해 두 경향의 차베스주의, 특히 정부에 선거의 정당성을 제공하던 전자의 차베스주의를 유지하기 힘들어짐과 동시에, 한 경향이 다른 경향에 대해 승리를 거둔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정부와 가장 가까운 지지기반에게 무능함과 부패가 실행

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순간에, 현 상황은 차베스주의의 중추 엘리트와 혁명 프로젝트 간의 타협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제안들을 유효하게 할 가능성 앞에서, 지지기반인 좌파 분파들은 행정부와 국회(대다수 야당 지지자와 쇠퇴하고 있는 대규모 반정부 세력으로 구성된)가 세력 다툼을 벌이는 와중에 마두로가 제헌의회를 소집한 것에 동의하였다.

그렇지만 지지기반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선거위원회가 선거를 조작한 것, 그리고 국가에 신랄한 비판을 유지해온 반대파의 목소리가 배제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러는 사이 베네수엘라의 다른 지역에서처럼 1월 23일 지구에서 위기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헌의 정확한 영향 때문만이 아니라 제헌 과정이 차베스주의의 엘리트들이 혁명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차베스주의 분파들은 정부와 야당 앞에서 오랜 저항을 지속하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이 대내적, 대외적으로 알려짐으로써 베네수엘라 좌파의 새로운 대안이 등장하는 데 이바지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말이다.

조혜진 옮김